

포항제철 창립24주년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포항제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을 기업문화로 승화시킨 포항제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항제철의 다섯가지 정신 — 개척, 도전, 희생, 협동, 공인정신.
이것이 연간 매출액 6조원의 국내 제1의 제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포철 특유의 기업문화를 정립하였습니다.

창립 24년만에 세계3위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포항제철

세계최고 품질의 철강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을 세계 2위, 전자산업을 세계 6위, 자동차산업을 세계 9위로 올려 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세계 교역량의 5퍼센트인 연간 5백만톤의 철강재를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활성화에 앞장서는 포항제철

제조업은 경제의 근본입니다. 포항제철은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설비 투자액 18조 5천억원의 9.7%에 해당하는 1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미래산업을 개발하는 국민기업

금년 10월 조정 년산 2,100만톤의 4번째기 製鐵大(設)를 완성하고 이동통신, 신소재, 정밀화학등 첨단산업에 진출하여 다가오는 2001년에는 매출액 2백억원의 세계 초인류기업으로 성장.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社説

혁신적인 자세전환 시급
-정부·재벌, 일부대학편중지원을 보며

최근 地方도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國內 유수 기업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7개의 수도권대학과 全南大 등 지방 8개 대학 工科大學에 대해 수천만원의 재정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내 대기업과 무역협회의 공동지원이 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하였던 기술대학설립안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기존 공과대학의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技術保護장벽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음을 볼때, 2000년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科學과 技術의 진흥없이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우리 정부와 기업계는 이미 충분히 인식하며 왔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경제발전을 성취하려면 高度技術 尖端技術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하며, 그것은 기술개발능력은 창의력에 기초한 科學의 밑받침이 없이는 안되고 그것은 科學의 力量은 특히 大學教育의 質向上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이 고려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유수한 수도권대학과 일부 地方大學에 국한하여 재정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선, 일부 소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고도기술 정보화산업사회에 필요한 國際競爭力를 갖춘 優秀한 研究·技術人力과 技術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이 그 環境이나 여건이 아직도 內實있는 교육과 實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기반의 확충없이 소수 몇몇 대학만 육성한다고 과연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점이 없지 않다.

또한, 大學間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학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곧 시설의 내용과 교과과정의 내용에 따라 內實있는 교육여부가 결정된다고 볼때 이미 재정지원이 결정된 대학과 其他大學과의 수준을 보면 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은 한마디로 재정적 위기상태에 있다. 國立은 국립대로, 私立은 사립대로 대학가능이라고 한 教育研究 그리고 社會奉仕를 수행할 최소한 所要經費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더구나 수도권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은 地方化 時代를 맞아 地域間 均衡發展 도모를 위한 국가발전 정책과도 배치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諸力量이 집중됨으로써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過疎現象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모든 분야에 있어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이의 극복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大學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역할과 위치에서 볼때 수도권대학의 집중지원은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을 더욱 집중화시켜 수도권지역의 과밀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정부와 기업계는 재정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자세전환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본다.

6·7일 제총합 출범식 거행

도내 대학간 '학과 결연' 맺어 연대를 강화
민주정부수립 투쟁에 총력기로

제4기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제총합, 상임의장 윤철수 무역4) 출범식이 5월의 역동적 정세속에서 자주·민주·통일의 총체화를 이뤄내면서 당면투쟁의 내용적 심화 및 전선의 확대를 기하기 위해 5월 6일과 7일 양일간 우리학교와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일정표 참조)

6일에는 오후2시 사수대결의대회로 시작으로 6시30분 '출범식 사수 결의대회' 및 전야제 등을 갖고 노래대공연 등으로 출범식 사수 결의를 전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다.

7일 오후 3시부터는 출범식 행사가 열려 △상임의장의 대중적 추대 △제총합 총노선의 대중적인 선포 △당면투쟁의 결의 △각대학의 결의 등이 있게 된다.

출범식이 끝난 오후6시에는 제주 시내 전역에서 시민과 연대한 가운데 거리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총합 한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의 의의에 대해 "△'92년 국공문동의 과제 속에서 민주정부 수립 투쟁의 기수로 자주·민주·통일의 전선을 심화시켜 내고 4천만 민중과 함께 벌여나가는 연대투쟁을 벌여 나감과 동시에 △조직적 과제속에서 자주적 학생회 건설·강화투쟁의 성과와 1만2천 청년학도의 의지와 요구를 수렴해 제총합 건설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예년과 달리 과단위부터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도내 각 대학간에 '학과 결연'을 맺어 연대의 시간을

(제총합 출범식 행사 일정)			
시 간	행 사 명	시 간	행 사 명
6일	출범식 선전의 시간(각대학 교문 앞)	6일	사수대결과 남아있는 학우를 위한 자리
8시30분 ~ 10시		10시 ~	
2시 ~ 3시	사수대결의대회	7일	교문앞 선전전
3시20분 ~ 4시	결연 '과' 만남과 합판대동놀이	8시30분 ~ 10시	교문앞 선전전
4시 ~ 6시	결연 '과' 연대의 시간, 각 일꾼결의대회	1시 ~ 2시30분	92학번 뽀빠이대회
6시30분 ~ 10시	출범식 사수결의대회 및 전야제	3시 ~ 5시	출범식

마련 '학과 결연'의 성과물로 92학번 뽀빠이 대회 등을 갖고 출범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갖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ala Cio박사 초청 강연
30일 환경문제 주제로
미국 마이애미 프란시스코

Pala Cio환경연구소장 Pala Cio박사 초청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이란 주제의 강연이 환경문제연구소(소장이정재 중식학과 교수)와 환경공학과(학과장 허철구 교수)공동 주최로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제8대 동연 출범

'바람직한 대학문화 창달' 결의

제8대 동아리연합회(회장 김병수 해양4)발대식이 지난 4월10일 30개동아리소속 학우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열렸다.

김병수를 시작으로 각 동아리장이자, 고사, 하나외는 단결투쟁의 장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인들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각 동아리간의 단결을 도모하면서 올 한

해도 더욱 바람직한 대학문화 창달에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 동연행사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치뤄졌던 고사에 각 동아리들이 구호·노래·상징물을 준비해 참여토록 함으로써 모든 동아리들이 발대식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4·19혁명 계승... 진군대회' 개최

4백여명 학우 시내 곳곳서 자정까지 가투 전개

'4·19혁명 계승과 군부정권, 단체장 선거 연기, 농정파탄 주범 노태우정권 응징을 위한 청년 야라 진군대회'가 지난 17일 오후1시 2백여명의 학우가 모인 가운데 총학생회(회장 윤철수 무역4)주최로 민주광장에서 열려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진군대회에서 총학생회장은 "14대 총선에서 군부재자 투표부정, 안기부 정치장 등으로 민심을 도저히 잃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로 관공선거 음모를 노골화하는 미국-노태우 정권의 응징을 위해 출정한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30분째 3백여명의 학우들은 출정가를 부르며 교문 밖으로 진출, 페퍼포그를 앞세우고 시위를 저지하는 전경과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약 2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상(법학3) 학우가 연행됐다.

4시20분경 교문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진 학우들은 오후 6시까지 중앙성당에서 다시 집결했다.

중앙성당사내에 집결한 4백여명의 학우들은 도내 4개 대학 합동결의대회를 갖고 '한라일보 파업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4·19계승 투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총학생회장이 낭독한 4·19 계승 투쟁선언문에서 학우들은

"미국-노태우 일당의 민생파탄, 부정부조작 음모를 심판하고 민주정부 수립 투쟁으로 살아가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이후 학우들은 중앙성당, 제일교, 서문로, 칼호텔 등지에서 "4월혁명 계승하여 독재정치 물러내고 민주정부 수립하라!" "야라가 싸여간다, 농정파탄 주범 미국-노태우정권 물러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밤 11시30분경 정리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서는 문성은학우등 10여명의 학우들이 연행됐으나 18일 새벽녘에 모두 풀려났다.

제주민의 슬기를 '49년 1월의 '북촌리대학살' 및 '아이교'사건과 집결시켜 극화한 것이다.

장명국씨 초청강연
3회에 걸쳐 실시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상임의장 윤철수 무역4) 주최 장명국씨(석탑 노동연구회 회장) 초청강연이 지난 4월21일부터 법정대 증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학우들의 올바른 사상정립 및 정세관망등을 위해 4월21

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강연의 일정과 내용을 보면 △첫째강의:4월21일-'인간·사회·사상' △둘째 강의:5월14일-근대철학과 현대사상 △셋째 강의:6월9일-'92년 정세전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이다.

허상중 출장소장
판매과장으로 전출

▲지난 4월13일자 농협 제대출장소장 허상중씨가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판매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는 하순범씨가 발령받았다.

한·일친선 핸드볼경기 가져
본교·대동특수강실업팀 등

우리학교핸드볼팀은 지난 4월21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대동특수강실업팀 및 강원도 강원주조실업팀과 함께 제3회 한·일친선핸드볼경기를 우리학교체육관에서 가졌다.

한·일간의 친선을 꾀하고 동시에 대동특수강실업의 한국에서의 전지훈련을 위해 열

린 이번 대회에서 3팀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 각 두시간 동안 하루 두차례씩 연습경기를 펼쳤다.

한편, 우리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인 노현석, 임진석선수는 작년부터 일본대동특수강실업팀의 주전선수로 뛰고 있다.



규은 과교 교수, 김규은 과교 부교수, 오명철 생물학과 교수 '리 미분'에 관한 소고 (김용관 교육대학원, 현진 오 교수) 등 4편의 글이 실려 있다.

게시판
▲단과대학 문화페 협의회 (의장 문홍식 해양환경공4)에서는 지난 4월15일 법정대 증강당에서 모두 12개동아리가 모인 가운데 상반기 정기총회를 갖고 운영위원회 인준 및 상반기 사업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동맹 분과장 남영(영공3), 노래대 분과장 윤정아(독문4), 연회 연구회 분과장 고영남(과교2)학우 및 교육부장 오수인(국문4), 총무부장 민해철(수의2)등 5명의 학우에 대한 운영위원 인준에 이어 △총학생회의 인준 제외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회비 확보 방안을 검토했으며 △야대노래대 '소리' 크는 나무'의 신규가입을 승인하는 한편 삼반기사업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등 학생회와 연계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농이페 '한라산'에서는 열한번째 민족극 한마당 '4·3추모곡 꽃놀음'을 4월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꽃놀음은 원래 마을의 덕망있는 어른이나 형제 청년이 죽었을 때 장례식 전날 평소에 말수가 잘 다니던 마을 곳곳을 빈상자를 메고 돌아다니는 행사로 이번 공연은 이러한 슬픔을 극복하는

교수동정

▲김세재(생물학과)조교수=지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동아대에서 열린 한국동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참석.

▲김규일(축산학과)부교수=물고기 사료개발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 오는 5월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 출장갈 예정.

▲유장걸(농화학과)교수=지난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분자생물학회심포지움'에 참석.

▲현해남(농화학과)조교수=지난 4월24일부터 27일까지 효성여자대학에서 열린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에 참석.

▲양경주(영어영문학과)교수=김인규(음악학과) 부교수가 해충들에 따라 평의회 의원으로 위촉(임기 92.4.16~93.3.26).

▲고장건(기관공학과)교수=이용학(통신공학과)부교수가 그 직을 면함에 따라 공동심합실습관 운영위원회의 위

원에 임명(임기 92.4.14~93.3.26).

▲이기욱(영어영문학과)부교수=고태홍(영어교육과)부교수 후임으로 제17대 영자신문사 주간으로 임명(임기 92.4.11~94.4.10).

발간소식

▲학생생활연구소(소장 허철수부교수 교직과)에서는 소식지 '아라인'제9호를 지난 4월15일에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특집=우리 대학의 '시설·설비 및 교육자료의 발전과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박태수(학생생활연구소 상담지도부장)조교수의 '죽지를 통한 만남' △등로 상담자훈련프로그램 소개한 '물에서 벗어나' 등 6편의 글이 실려있다.

▲'과학교육' 제8호가 지난해 12월 과학교육연구소(소장 현진 오 수학교육과 교수)에서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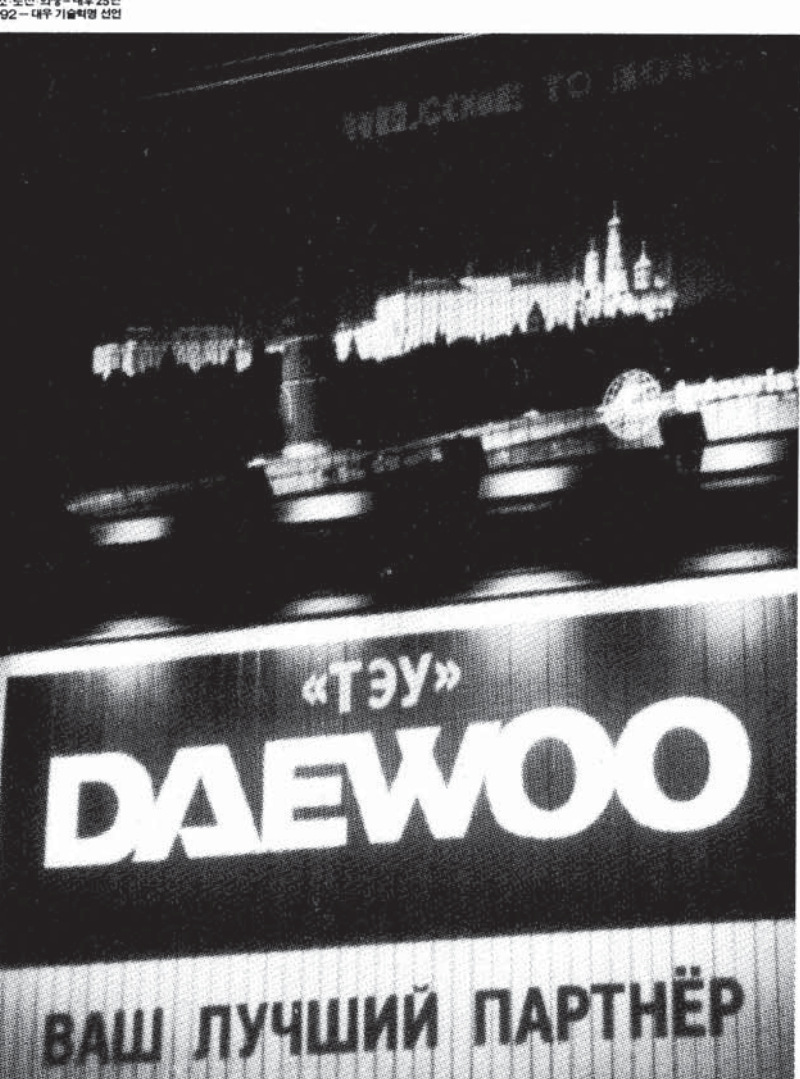
이번호에는 '원자론'(현진 규 물리학과 조교수)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한 과학교육 분야 박사학위 논문분석'(박

有대漫評



씩어가는 '양파'

25
창간 25주년 기념
1967년 4월 25일
1992년 4월 28일 창간



■ 그곳에 우리는 왜 가는가? 한국경제의 세계화이든 우리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사건은 모스크바의 아를을 배경으로한 대우의 옥외광고)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고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입니다.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는 좁은 울타리를 박하고 타 문명세계에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국제시장을 향해 대우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1960년대-

그때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이같은 타국인들의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내부에 팽배해있는 절망감은 오히려 희망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과 5명의 직원과 자본금 5백만원으로 시작한 대우는 세계를 넓고, 그 세계와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대우의 돌풍은 타기업의 국제화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을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단어는
대우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대우가 창립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 뜨거운 집념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만이 우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그렇게 할 때 언젠가 대우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개발 차원에서 곧바로 해외지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무역업체가 세운 최초의 해외지사로 기록되는 대우의 시드니 지사와 싱가포르 지사-

이 두 지사는 도전정신과 용솟음치는 젊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우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인지사로 출발한 싱가포르 지사의 차장이었던, (주)대우 윤영석 사장은 초창기 대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1인지사. 말만 들어도 참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지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도맡아서 정신없이 뛰어 다녔지요. 그래서 '고독'이나 '외로움'같은 말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두들 해외개척의 화신들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이었고 대우였지요.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첫번째가 대우의 74번째

동구권 시장개척은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80년대 말 동구의 개방과 개혁의 흐름은 빠른 장벽을 무너뜨리고 연이어 소련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우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 최초로 동베를린 지사를 개설했습니다. 대우의 74번째 지사인 동베를린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권 무역지사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사에도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 구 소련의 모스크바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도 지사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해외개척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으며, 오늘날 또한 세계를 열린 세계로 만드는 대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대우가 갈 수 없는 땅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럽의 심장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경

계의 상징 북경을 거쳐 과거 '철의 장막'의 관문이었던 하바로프스크에 이르기까지 대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우의 84개 해외지사 - 전 세계에 펼쳐진 대우의 일터에는 오늘날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오지에서 우연히 트럼파 한 대를 목격 했을 때 어떤 감회에 사로 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판 차가... 짜임하고 가슴을 찢어지죠. 그냥 눈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는 대우 자동차 한 대를 쳐다보며 눈물을 펄펄 쏟았다는 (주)대우 추호석 사장의 말처럼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시장개척의 차원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한 예로, 리비아는 파견회교국으로 대우가 진출할 당시 북한공관이 설치되어 있던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석유부국이었던 축적된 기술이 없어 해외개척을 통해 건설사업을 해결한다는 기회를 포착, 대우는 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무릅쓰고 리비아 건설시장에 본격 상륙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대우가 최초로 수행한 가리우니스의과대학 신축공사를 계기로 호텔, 고속도로, 비행장 등을 수주했고 '80년대에는 트리폴리와 뽕가지에 1만 3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우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그 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1년에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총수주액의 38%를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우즈(Azzou) 비행장을 건설할 때에는 정부각료들이 예고없이 건설현장을 방문, 10여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기도 해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의 의지를 심고 민간사설로서의 몫을

□ 메이데이를 맞으면서

정부, '총액임금지 도입' 등으로 노동 탄압 가속화 노동계급 중단결 자본권력의 전면공세에 맞서야

윤미은
사회학과

I. 들어가면서

1992년 5월의 '아!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를 맞이하는 마음은 너무나 무겁기만 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5월에는 '계절의 화사함'과는 달리 지배세력의 민중에 대한 '탄압의 축제'가 극을 달했던 역사적 경험이고, 그로 인한 80년 '피빛광주'와 91년의 5월투쟁에서의 안타까운 영혼의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년간 급박하게 돌아오는 세상의 변화와 이로 인해 빚어진 역사적 전망의 혼돈과 동요의 연속선상에서 지난 3·24총선의 과정과 결과로 보았을 때 그 무게감은 우리의 어깨를 더욱 짓누른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이렇듯 노동자, 민중이 처해 있는 '생존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현실'은 무거움을 느끼는 다소 감성적인 사고를 빚는 듯이, 그리고 머리로 느껴지는 '현실의 무거움'과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에 메이데이를 앞두고, 아니 그보다도 이땅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기를 앞두고 단순한 '기념'과 '희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도록 하자.

II. 현정권의 노동탄압 실태

최근 정부와 독점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가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연일 신문, 방송을 통해 정부와 노동계의 총액임금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숨 돌릴 여유조차 주지않고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왔던 각 사업장에 대한 총액임금제(구체적으로는 총액기준 5%내 임금인상 지침) 적용 지침을 필두로 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공격을 선포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해 '총대'를 둘러싼 노동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사활을 걸고 총액임금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화폐임금이란 측면에서 총액임금제가 임금통제정책임은 분명하다... 반대투쟁을 하겠다"며 "해당 기업에 대해 무조건 강행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연대투쟁도 억압할 것이고, 총액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노동부 시책을 번갈아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무조건 강행하고자 하는 것일까?

기관 정부의 노동통제 정책을 살펴보면, 농어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농촌을 없애버리고 수입해서 먹고 살자!!'는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산업합리화의이름으로 진행되는 자본과 권력의 노동통제의 정책은 이미 '무노동 무임금'지침을 거쳐 지난해 '30분일터하기 운동(유노동 무임금)'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정부의 공세가 공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임금'에 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판단해 본다면 총액임금제는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일이 허다한데)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물가도 올라간다는 선전공세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도 억제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에 있다는 것으로 선전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지난 4월5일 재벌그룹회장단 모임에서는 "정부의 임금안정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으며 불발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즉각 투입을 요청하는 재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역할분담'은 이렇듯 조화롭다.

총자본의 구성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자리잡은 독점자본과 파시즘은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에 대해, 그리고 노동운동이 중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는 민중운동에 대해 한치의 여유조차 없는 탄압과 통제를 행사해 왔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운동진영 또한 확실한 탄압속에서도 지역적 수준으로부터 전국적 수준으로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통해서 왔고 동시에 노동계급과 민중의 정치세력화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제 총자본 내부에서도 독점자본과 파시즘 지배세력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은 상품의 생산과 집중과정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이를 통해 사회적·정치적·지배력을 높이려하고 있다. '재벌의 정치세력화'로 표현되는 국민당의 총선을 통한 의회진출은 이미 한 수준에서나마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자본 전체의 이익이나를 둘러싼 갈등의 성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자유로운 노동'과 배치될 것이다. 때문에 지배세력내부의 투쟁의 종착역도 노동자, 민중의 힘이 개입되지 않는 한 자본우위성이 관철되는 지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



◇지난해 11월 12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장면('길을 찾는 사람들', 92년 5월 호 사진)

부와 현대-국민당의 갈등으로 사회화되었던 지배세력내의 주도권 싸움은 결코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과는 무관함이 자명한 사실이다.

III. 메이데이의 의의를 되새기며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남는 것은 추악한 폭력의 피자국이요 착취자와 억압자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나의 목을 가져가는 대신 당신 자신의 목을 노동자와 민중 앞에 내놓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박노해의 명정 최후진술 중 일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주요 경쟁 상대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고, 작업장 또한 생산하는 작업장이 아니라 목숨 걸고 피땀 흘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야만적 착취에 피어남 '자신의 꽃'을 노동자, 민중의 공동자산인 '웃음 꽃'으로 환원시키는

그날까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92년 한해는 권력재편을 둘러싼 지배세력 내부의 이완작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공간의 활동을 통한 대중투쟁의 공강화 및 정치적 혼란, 나아가 민중스스로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진로를 구제화 하는 사업은 자본과 권력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가 해방되는 가장 올바른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민중해방을 앞당기는 해법방안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과 권력의 전면적인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길 뿐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운동은 현재와 미래의 투쟁에서 미래를 대표하는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운동의 목적은 경제적 지위의 향상,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 개조를 목표로 하며, 나아가 그것은 다른 계급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권력의 주체로 정립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절대적명령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오직 이 길만이 배어낸 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 그리고 '나를 이 차가운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속에 묻어주오'라는 김대리 열사의 피맺힌 외침을 오늘도 되새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92년 이 주르른 5월에 104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으로서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 강연초록 -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완전독립쟁취 및 생존투쟁 위해 봉기

이 글은 '순이삼촌', '바람타는 섬'의 작가 현기영씨가 4월 7일 총여학생회주최의 제1회 자주 여성강좌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역은 이 씀)



현기영씨

4.3을 더듬어 봄에 있어서 중요하고 격정으로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4.3봉기는 계급주의적이기 보다 반외세, 자주화이념에 바탕을 두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제주사회구조를 보면 육지와는 달리 계급이 덜 분화되어 있었다. 지식계급인 유생들도 대부분 직접 경작하는 등 대체로 가난한 평민화 때문에 계급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제주사회는 품앗이 등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이룩했다. 그 옛날 수목 2천리를 사이에 둔 제주민은 억압과 침탈을 감수해야만 했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바 제주를 일개 현으로 격하시키는가하면 고려왕실에서 제주도민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호랑산을 보내 제주전역의 수맥과 지맥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제주에는 인물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중앙지배가 이뤄지게 되자 진상과 군역의 집이 부과된 제주에는 매우 고통받은 환경에 처해 있었고 삼별초 항쟁을 겪고 나면서 풍조에 의해서 많은 징발을 당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제주도민에 대한 착취가 가중되던 중 일출년 진주란보다도 더 큰 규모의 '간제검'의 난이 발발했던 것이다. 이후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 등은 파견관들과 그에 결탁하는 세력들의 횡포와 착취에 가만히 당할 수 없어 제주도민들이 동치되어갔던 봉기다.

제주에 있어 민란이 일어나면 그 지도부에 '장두'라는 난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는 중앙에 보내는 탄원 소장에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장두는 힘으로 관군에 맞서 제주도민을 규합시키려는 힘을 발휘하는데 중앙에서 일련의 조치가 행해진 뒤에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돼 있다.

이렇듯 제주도민은 생존의 차원에서 외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일찍부터 몸에 배인 채 세화를 해쳐나왔다. 일제시대에는 잡녀들의 투쟁이 있었다. 해녀들이 일제의 착취에 항거해 투쟁한 것인데 그것은 계급적 성격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다.



현기영씨

4.3은 위의 전통을 접목한 선상위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계급이념보다는 반외세, 자주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아울러 '4.3'의 원인은 물질(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

해방을 전후해서 징용·도일 등으로 해외에서 해마다 6만 명이 도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맞은 해방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상태였는데 해방전과 다름없이 공출은 계속되고 흉년은 과거보다 더 심하게 계속됐고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한, 일제때 가늠했던 일본과 지가래 무역도 중단되고 38선이 생김에 따라 전기·비료보급이 거의 중단돼 생활은 이전보다 더욱 궁핍해졌다.

이런 피폐한 생활속에서 공출반대의 여론이 높아지고 미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진다. "해방이 된 줄 알았더니 38선이라는 방패선이 생겼다." "지금 같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고 독립을 위한 독립투쟁의 시기이다" 등 해방공간의 상황은 해방이 아니라 친일파관리의 재일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진 상태였다.

민중은 아무리 봐도 그 상황이 해방이 아니었다. 여기에 4.3의 기운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47년 3·1집회를 열고 (제주를 2만여명, 도전역 약3만여명) "공출반대, 미군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일제시대에도 총소리를 못들어 본 제주도민들이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피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에 도민들은 전 지역에 걸쳐 모든 기관, 학교, 직장에서 파업을 단행한다.

민약 그 당시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발표자를 처벌하고 미군정이 사과를 했으면 그 후에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적반하장격으로 군을 투입시키고, 파업주모자를 잡아들이는 등 억압을 확대했다. 미군정과 단독정부 추진세력은 제주를 붉은 섬이라 뜻을 박고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워 섬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학살당하는 도민을 보며 앞잡이들을 피해 주모자와 여타 도민들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4.3은 이러한 더할 수 없는 격한 공지에서 발발한 도민들의 발악이었다. 4.3은 미군정의 그릇된 통치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주 군정자문관 라우웰은 "사건의 원인은 흥미가 없다. 오직 진압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군정과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소 3만명 이상이 죽은 4.3은 '제주의 원곡'이라고 할 수 있다.

4.3은 종래의 전통적인 민란의 성격을 담았지만 그 격차는 판이하게 달랐다. 과거 민란은 지도자가 자신의 몸을 바쳐 난을 매듭지었지만 4.3은 그렇지 못했다. 지도자가 진퇴를 결정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정지훈 시인의 시 '백목달'에 보면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않는 한 모퉁이'라 한라산을 부르며 산야를 노래한 것이 있다. 그러나 한라산에는 귀신이 없는 게 아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에이제 저 허공에서 저승에 안착하지 못하고 비바람따라 흐르는 어느 하늘에 닿기를 것이다.

슬픔은 대체로 눈물로, 한숨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4.3은 눈물과 한숨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덜 서러워야 눈물이 난다'고 그렸다. 당시 사람들은 죽어간 가족들을 위해 눈물하나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시신을 매장해야 했다. 당시 맨손, 빈몸으로 사나운 총칼앞에 쓰러진 생명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차마 인간인 인간들, 동족이 동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할 수 있던 말인가. 동족이 동족을 해괴한 짓을 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매맞고 고문당하고 찢긴 상처로 아픈 선조들은 지금 그 다고 물에 세상을 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진 지금 그것이 지워질 수 있겠는가. 지금도 4.3은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시간을 속에서 이어져온 우리들의 기억이며 그 영령들은 우리의 수호신인 것이다. 제주도의 제사장이 '메'만 놓아도 제사장이 가득 차는 곳이 많다. '남편이 제사'를 지내는 곳도 많다. 그러나 '남편이 밤'이라도 먹는 귀신은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에는 아직도 제사바다 못되는 귀신들이 많은 것이다.

이제다 용어리가 채 풀리지 않은 4.3의 진상규명과 원혼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전국적으로 4.3진상규명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리 김정훈기자]

을 남기려고 하는가!

특히 해나기도 했습니다. 대우가 이처럼 개척하기 힘든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를 선택한데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민간외교의 첨병역할을 해내고자 함이며 나아가 한겨레의 가장 큰 소망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대우가 선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우가 창립 이후 꾸준히 지켜온 '공존공영'의 정신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은 미지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기술의 나라, 일본 입성(入城)

대우의 해외개척사는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뿐 아니라 선진 세계 각국에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우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최초로 일본의 최첨단 전자통신분야 연구단지인 소프트 리서치 파크(Soft Research Park)에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만들게 됨으로써 기술보호의 벽이 세계 최고로 뚫는 일본에 대우의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미국 실리콘 벨리와 구 소련의 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술과 해외의 정보가 만나는 대우 기술창조의 선진 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캐나다와 호주에 대규모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 각국과의 대등한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우는 현재, 중국의 복주(福州) 방공 공장 설립, 헝가리의 은행 설립, 북한의 남포공단 조성 등 공존공영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43개 투자법인 운영과 더불어 39개의 신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전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해외시장 개척이란 한마디로 시작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라의 민족, 풍습,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술이 능한 인도네시아 같은 곳을 개척하기란 허탈하리라 짐작하는 것만 큼 힘든 일이지요. 인도에서 일한 지난 5년, 저는 또한 더위와 풍토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생각하곤 했지요. 저보다도 더 열악한 오지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많은 우리 대우가족들의 소망의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요."라고 지사생활을 얘기하는 (주)대우의 도정원 과장 - 도과장의 말처럼 오늘의 대우가 있기까지 지난 44년 대우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대우인들의 땀방울이 알알이 스며 있습니다. 1980년대초, 북예멘 지사에 근무했던 김승현 대리(현재 대우자동차 부장)도 살아있는 신화를 갖고 있는 한 사람. 김대리는 그 주민들이 알라에게 예배할 때 씬스 '까트'라는 풀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까트를 제일 잘 씬는 외국인인 되기로 결심하고 구역질을 참아가며 씬고 또 씬어, 마침내 알둘라라는 거상(巨商)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김대리의 까트 씬는 풀이 예멘인들 보다 더 우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얘기는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쌓여있는 수많은 일화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89년 파나마 사태 때 살인과 약탈, 총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사의 상품창고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채 목숨을 걸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함께 버틴 파나마의 대우인들, 무더운 맹벌 아래 일할 때 늦지 않으려고 온 몸이 소금기가 허물게 되도록 달리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도 음식에 소금냄기를 꺼린다는 대우인, 전쟁터를 누비며 낯선 땅을 개척하다가 마나나 타국에서 쓰러져간 대우인... 이처럼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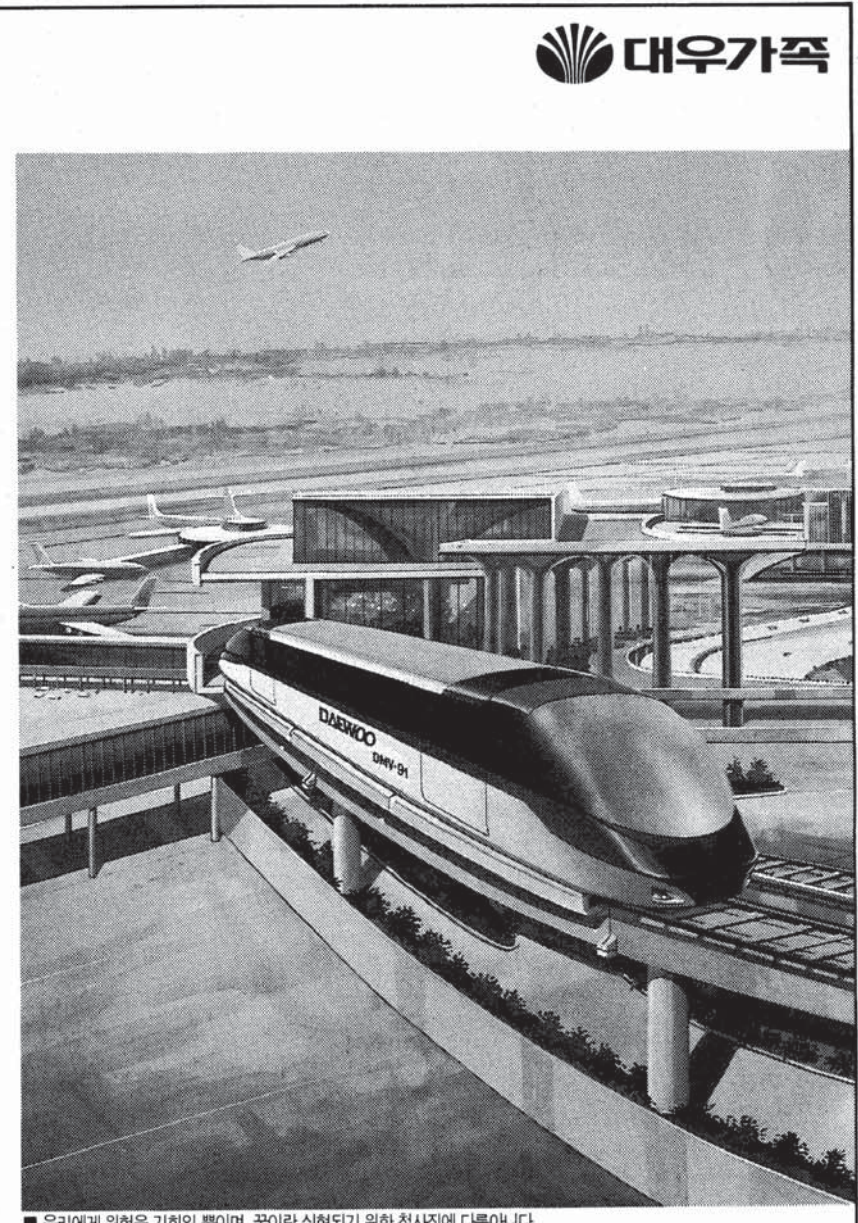
끈기로 세계를 놀라게한 대우인들, 끊임없는 창조적 연구개발로 한국이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우리 기술인들. 밤을 밝혀 서류와 씨름하면서 단 한 분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눈을 부릅뜨는 대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몸을 아끼지 않는 '도전의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슭, 더 넓은 기슭, 더 뜨거운 기슭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대우가 변함없이 추구해 가고 있는 국제화의 길 - 좁은 국토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한 국제시장에 도전해온 해외개척의 의지,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의 행동철학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 도전, 희생의 대우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역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대우의 연민한 정신(精神)! 그것은 바로 더 큰 기슭, 더 넓은 기슭, 더 뜨거운 기슭으로 세계를 안으려는 여러분, 이 땅의 대우인들의 열정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한결같은 젊은 기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우, 여러분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우리에 위협은 기회일 뿐이며, 공이한 실현되기 위한 청사진에 다름아니다. (사진은 공의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자기부상열차. 대우가 산업협동회 소속 수송기술로 개발해 '92년 7월 40인승이 선보일 예정이다)

고원희 교수님께

문충성 (인문대부교수·시인)

푸르름이 천지에 하나 가득 출렁이는 푸르른 날에
이 세상 모든 것 두고 훌훌 가시려나
제주섬에 나서 현란한 불어불문학을 처음 공부하시고 불어를 가르치신 이
언제나 학문하는 데 꼼꼼하셨고
제자들 가르치는데 넉넉하셨다
제주대학교에서 20여년을 하루같이
용담캠퍼스에서 시작하여 아라캠퍼스에서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때로 소주에 취해 떠돌아 댈 때도
'불문과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셨지
올해도 생맥취배리의 '어린이왕자'를 강의하시며
병마와 싸우며
아픈 몸 이끌고

아픈 몸 걱정하기보다
강의 못하는 걱정을 하셨다
비록 어린이왕자처럼 금빛 머리칼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 금빛 웃음 웃는 자그만 별을 동경하셨다
아아 이제 그 자그만 별이 되어 떠나시려나
고원희 교수님여
당신과 연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당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향을 바치노니
이제 땅 편히 쉬소서
밤하늘이 아닌 이 아라캠퍼스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이따금씩 당신의 금빛 웃음소리 듣는 하늘에 당신은 계시니
모든 정한일랑 버리고
부디 편히 쉬소서
당신의 뜻대로 불문과가 생기는 날
다시 우리는 생맥취배리의 어린이왕자처럼
저 푸른하늘 눈부시게 바라보며 함께 금빛 웃음 웃게 될 타이프로
부디 편히 쉬소서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인
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
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들의 참여공간입니다. 항상 열린 지면
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지들아 굳게 뭉쳐 승리의 대열로"

—강경대열사추모 1주기를 맞으면서

"...거리에 흩뿌려진 친구
의 선혈, 그대는 무얼 생각
하는가 투쟁의 거리에 가슴
젖는 아픔으로 일어선 동
지들 피와피워내 피끓는 청
춘으로 다짐하노라.
조국의 아들이 열사로 다
시 살아나 나의 심장을 두들
겨 전진케 하라..."
'복수'라는 민중가요의
일부수이다.
지난 간부학교때 이 노래

를 배우며 작년 4.26이후에
수없이 우리의 선봉에서 살
아오는 핏물이 뒹도는 열사들
을 생각했었다.
50여년의 대학생활을 송년
이 같은 백골단의 쇄파와
구두발에 자기대학 담장
밑에 피흘려 쓰러졌으며 마
감했던 강경대열사!
공간전지속에서 안타깝다
는 기분에만 젖어있었더니
우리 청년학도의 타성을 자

신이 핏물되어 불사르던 5월
열사들!
지금 우리는 다시 4.26을
맞고 있다.(하)가야 미·노일
당이 용트림을 하고있는 한
식민지 남에서 어느날이 4
.26이 아니겠나(만).
작년의 우리의 거대한 투
쟁은 여러우여곡절을 겪긴
해도 가열창고, 달걀과 밀가
루가 과대선전되기 전만해도
전민항쟁의 성격을 띄웠었

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
대한 투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작년 통일단결총학생회장
위성군이 잡혀가도 학교는
마냥 조용한데, 간부들만 뛰
어다니는 것 같아"라는 친구
의 목소리가 나의 불안감에
한층으로한다. 그러나 복수
가 불투명, 동지들의 얼굴
을 보며 그런 불안감은 모두
다 눈물이 되어 녹아내리는

것 같다.
동지, 바로 옆에 있는 나
의 친구 X×가 언제, 어디
에서든지 강경대열사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몸으로 깨닫고 이를
막아내려는 결의가 8천 아라
학우들에게 번득이고 있는가.
"동지들아 굳게뭉쳐 승리
의 대열로, 저들의 심장에
피의 불벼락을 내리자"
(진인경 국어교육과)

시험기간에만 도서관 북적 평소에 연구·탐구하는 자세 갖자

대학이라는 공간속으로 발
을 들여놓는지도 벌써 두달
이 지나간다. 그동안 설해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지금 뒤돌아보면 조금은 후
회스럽기도 하다. 3월초, 개
강파티다 신입생 환영회다 새
클로밍이다 해서 결론은
오리우리하진가? 지성인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꼭져어진 시간과
빈자리 없는 교실에서 숨막
히게 공부만 해야했던 그시
절에서 벗어나기 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꼈는데 선

배들과 술자리는 더욱 우
리를 유혹했다. 처음엔 이리
저리 참치려도 참지 못했다. 당연
히 참치려야 하는 자리이고
오래 대학생이 되면 술도 많
이 마시고 놀기도 많이 하
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지
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지나친게 아닌가? 지성인이
라고 불려지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불려지길 원하는 우
리들이 과연 올바르게 행하
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저녁시간 중앙로 주점거리

는 아라인들로 술렁거린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서 시
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들이 마냥 우리의
젊은 기분을 이해해 주기만
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너
무나 지나친 이기주의가 아
닐까?

시험기간. 도서관에 자리
를 잡기만 하느라 별다른
다 더 어려웠다. 평상시에
시청거리, 중앙로 거리를 배
회하던 이들에게 시험기간엔
도서관에서 밤을 새가며 열
심히 하는 이들이 꽤 됐으리
라. 하지만 평소의 준비없이
즐거기만 했던 기분으로 펜
대를 잡는다면, 그게 진정한
실력쌓기가 될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명문대 도서관은 시험기
간엔 자리가 남아준다."

개신간

『과학사상』창간호



현재와 같은 사회변동기에
과학의 전진과 사회의 건전
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슬기로운 생각들을 담아
낸 이 책은 과학에 깃들인 다

양한 철학과 문화를 소개하
는 장이 될 것이다. (범양사
값4천5백원)

『추위를 이겨낸
장미는 아름답다』

대학교총장을 비롯, 대학
출신인 사회각계유명인사 30
인이 이제 각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조언하는 내용
으로 이뤄진 이 책에서는 대
학생생활에서 필요한 독서·취
미활동·인간관계등에 관해
대학·대학인, 대학생들 어떻
게 해야하나, 선배들의 대학
생활회고등 5부부 나뉘 설명
하고 있다.
(화랑문화사 값3천원)

□잠깐! 작지만 소중한 이것

체력은 국력이지만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싱그럽습니다. 건강한 체
력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하죠?
대운동장에선 축구로, 도로도로마다 축구경기로 한
창인 아라골에 건강한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하지만 아라인 여러분
빈 공간이면 어디에서건 가리지 않는 축구경기는
생각에 빠야 하지 않을까요?
행인의 걸음을 방해하면서 하는 축구가 체력은 튼
튼히 해주겠지만 건강한 정신은 나오지 않을 것 같군
요.

아라·이로

○...그대들 이름은 방관자
지난 4월17일 '4·19 혁명계승과 군
부정선거, 단체장선거거기, 농정파탄
주변 노태우정권 음모를 위한 청년아
라진군대회'시위도중 학우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교수아파트입구 부
근 여학생에 불은 일이 발생.
학우들이 불을 끄려 가자나 잡힐
것 같아 불을 좀 꺼달라고 전걸들에
게 요청했는데도 전걸들은 진압에만
신경쓰는지 그 요청을 무시한 채 근
엄한 표정으로 자리를 고수.
불이 나게 된 데 학우들 잘못이 없
는 것은 아니지만 전걸의 역할이 학
우들 진압에만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잘한 일인지 아닌지.
학교내 설치된 공중전화 사용시 불
평하는 학우들이 많아 그 이유를 알
아보니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신학기
를 앞두고 학우들의 통신편의를 위해
인문대 경상대를 비롯 몇개 단대에
있던 기존의 동전공중전화를 카드
공중전화기로 교체했는데, 사용자인
학우들은 3천원 이상의 거금(?)을 주
며 카드를 사자나 부담스럽다고 하는
가 하면 또 카드를 몇번 사용도 않았
는데 고장이 나는 카드가 많다는 것.
진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다면 전
화기를 동전용과 카드를 두대를 설치

작은 시정거리에서 고치는 일을 그
리 더디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로 관계당국의 무사안일하
고 무성의한 행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개교40주년을 맞으면 무슨 소용있
습니까? 하는 일이 어련스러워하
지요.
○...우리학교 회계년도도 5월!
개강한지도 두달이 지나 중간고사
도 이미 치뤄졌는데 학생회나 학교예
산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는데.

총대와원회에서는 삼일위원의 참여
부족으로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수차례 무산됨에 따라 학생회 예산을
아직도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하
면, 학교공의 기술회의예산도 따져야
할 것이 뭐 그리 많은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본사의 경우 원고료등
이 무달할 밀려 "신문사에서 원고로
때때로는 개 아니냐" 함의전화까지
걸려오는데.

"그 학교에 그 학생"이라 해야 할지
... 개교 40주년 된 우리 대학의 자
존심과 주인의식은 다 어디로 사라졌
나요?

회계년도도 5월

해 주시든지 고장난 카드를 즉시 반
환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
길.
○...무사안일행정의 표본
아라자 3월31일자 본지 가집기사를
통해 시계탑의 정지된 시계바늘을 바
로 고쳐줄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달
달 지난 지금도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학우들의 불만을 사고 있
는데.

공직설명회 행사 안내

정부는 2000년대 선진조국의 미래를 짊어지
고 나갈 유능한 인재를 적극 공직에 유지하기
위한 공직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공직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92. 4. 29(수) 15:00
- 장 소 : 중강당
- 참석범위 : 관심있는 전체 학생

학생생활연구소장

빠른취업·독립·안정·보수 좋은 인기 사무직

취업처

국회·각행정부처·언론 보도기관 국영 및 상장대기업
체 진출

교육과정 : 기초이론 : 2개월

실무실습 : 2개월

독학가는 6개월

속도숙달 : 2개월

- 철저한 개인지도 100% 취업주선
- 국가자격시험과 동일한 교육
- 고려속기 교육협의회 제주지부
- 전국속기 협의회 지정 학원

한국속기학원

(속기사 합동사무실)

중앙로 녹십자의원 3층 ☎ 22-9362

도내최고의 시설, 전문속기인 강사, 전문속기사 최다 배출

컴퓨터

개강!
5월 4일(月)

- 이달의 특성과정
- 새벽강의 설강(MS-DOS)
TURBO-C 과정
- 어린이반 컴퓨터소 행사안내
- 장소 : 한림공원내전시관(AM 10:00-17:00)

교실	제1교실	제2교실	제3교실	제4교실	제5교실	제6교실	제7교실	제8교실
강의시간	7:00~8:20	8:30~9:50	10:00~11:20	11:30~12:50	1:00~2:20	2:30~3:50	4:00~5:20	5:30~6:50
ASSEMBLY	COBOL	BASIC	VB	기타대비	W/P	MS-DOS		
BASIC	FORTRAN	주부교실	C	EDPS	주부교실	MS-DOS		
중급	고급	초급	고급					
5:00~6:00	고급	어린이 LOTUS			고급	고급		
6:10~7:30	ASSEMBLY	COBOL	BASIC	VB	EDPS	MS-DOS	W/P	
7:40~9:00	C	FORTRAN	COBOL	BASIC	기타대비	MS-DOS	W/P	

월드컴퓨터학원

위치 : 중앙로 주택은행빌딩 아세아타워회관
전화 : 52-3321, 57-6878

도내 최초의 정보처리요원전문교육기관

컴퓨터

- 프로그래밍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기사
- 컴퓨터기사

제109기 개강 5월 1일(금) 5월학기 접수중! (공휴일도 접수)

- 제16차 교육실습기자재 컴퓨터 도입, 386이론(UX)시스템설치
- 최신 SOFTWARE 1,000여종보유 실습실 공유일도 개방
- 1992년도 정보처리기사·기사 시험안내(중반기)자료제공

기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1	2	3	4	5	6	7	8	9
4.26	5.24	6.21	7.19	8.16	9.13	10.11	11.9	12.7

전문전산인 양성교육 국가검정대비! 유능한강사진!

- 문교부장관 표창수상 / 한국과학기술시스템 공학센터
- 서울중앙선학원과 재매결연 전산교육수료자
- 교육정보기관 교육정보기관
- 제주지역 정보처리기사
- 서울중앙선학원 강사연수 수료자
- 합격자중 절대다수 분할출신
- 대학원 진학

- 기사1·2급필기대비반
- 기사1·2급필기대비반
- UNIX
- AUTO CAD
- 기사1·2급필기, 기사1·2급필기(FORTRAN, COBOL, BASIC, 매달영어발문)대비반

- 프로그래밍 정규교육과정
- EDPS개론
- FORTRAN-I
- FORTRAN-II
- COBOL-I
- COBOL-II
- ASSEMBLY
- O-J-T(시스템분석 및 설계·실무)

- 프로그래밍 전문교육과정
- G/W BASIC-I
- G/W BASIC-II
- 파스칼
- C언어-I, II

- 프로그래밍 특별교육과정
- 기사1·2급 필기·실기대비
- 기사1·2급 필기·실기대비
- 전자계산일반(공무원시험대비)
- AUTO CAD
- 마이크로셈블러
- 유닉스(제닉스)

- 사무자동화(OA) 교육과정
- MS-DOS
- 워드프로세서
- 로터스 및 신플리
- dBASE

- 마이컴(G/W BASIC) 교육과정
- 국고(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고교생반
- 중학생반

- 키 편지(엔트리)과정
- 한글, 영문, 숫자, 키편지완벽실습
- 최신 워드프로세서 완벽교육
- 마이컴 조작성(1인 1대시스템 운용교육)

컴퓨터교육의 명문

한양컴퓨터학원

위치 : 중앙여중 서사라 입구 건너편 ☎ 52-1729-30, 22-2708 FAX 58-1151